

##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2017

Yun Ki Choi  
November 11, 2017



[Newsis]  
**International Symposium for the Korea-Japan Undersea Tunnel on the impact of Northeast Asia**

The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2017 and the Realiza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was hosted by the World Peace Tunnel Foundation in the first meeting room of the Yeouido Parliamentary Assembly Hall in Seoul...

[Newsis]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aliza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National Event**



On the 11th, the 2017 International Symposium on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alization of Peace in Northeast Asia was held in the first meeting room of the Yeouido Parliamentary Assembly Hall in Seoul, under the theme, “Korea-Japan Tunnel on the Impact of Northeast Asia,” with participants, including National Assembly member Chan-Yeol Lee, attended the national ceremony. From the left, World Peace Tunnel Foundation Korea President Kwang-Seuk Song, National Assembly member Lee, Democratic Party of Korea member Jong-Sung Lim...

[Segye Times]

## “한·일 해저터널, 동북아 평화로 가는 지름길”

세계평화도로재단 국제 심포지엄

건설 판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  
“양국 갈등 딛고 새 미래 나아가  
올림픽 경기 현실로 만들어가야”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세계평화도로재단(한국회장 송광석)과 이찬열 의원(국민의당·경기 수원 갑)은 11일 세계일보·UPF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일 터널의 동북아시아 파급효과’를 주제로 ‘2017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 실현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한·일 터널을 통한 동북아 평화·번영을 모색했다.

별제자인 신장철 송실대 일어일문학과 교수는 “한·일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연결돼 중국, 동남, 러시아를 통과해 유라시아대륙이 철도교통으로 연결된다”며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포지엄 좌장을 맡은 정태익 한국



세계평화도로재단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한·일터널의 동북아시아 파급효과’ 주제 국제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 번째부터 차준영 세계일보 사장, 이찬열 의원, 송광석 세계평화도로재단 한국회장, 투라뎃 우 마옹 주한 미얀마대사, 정태익 한국외교협회 명예회장(전 주러시아대사), 이재형 기자

외교협회 명예회장은 “내년이면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이한다”며 “내년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새로운 한·일관계에 대한 발표가 있을 텐데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한·일터널 건설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가노 신이치로(内野眞一朗) 일본 다이토분카(大東文化)대 명예교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이라는 철도의 기회

에서 서로 협력하면 한·일터널 실현과 동북아 평화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열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일 해저터널은 특정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더 크게는 동북아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이고 한국과 일본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임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은 “역사적으로 영속 관계였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유로터널이 건설되며 유럽공동체가 시작됐듯이 한국과 일본을 터널

로 연결하는 꿈 또한 과거의 침략과 갈등·분쟁으로 침략된 역사에서 공동의 번영과 평화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차준영 세계일보 사장은 축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꿈을 함께 꾸고 현실로 만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송광석 회장은 “한·일터널은 일본에는 과거의 악연을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의미가, 한국에는 화해와 용서로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의미가 각각 담겨 있다”고 말했다.